

圖 2.

그 때까지 없었던 모양이고 벽에도 도배를 한 후에 각자의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 붙였다. 그나마 조그맣게는 흠뻑 채로이고 장식이라고는 접시를 걸어 놓는 선반을 모양냈을 정도이다. 도자기를 굽던 조그맣은 工房과 石橋는 대단히 흥미가 있었다. 도자기 공방은 가마만 角窯로서 다들 뿐 轉轆나 선반대는 것, 유약푸는 등, 도점, 같이 질잡이나 삼베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용기구의 집의 도구와 어찌면 그렇게 같은지 재미 있었고 다리는 난간을 아무렇게나 생긴 나무로 만든 石橋인데 우리나라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법과 동일한 모양으로 축조되어 있었다. 불과 백여년의 일한 보람의 차이로 現代와 前代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등뒤로 느끼며 이 박물관을 나선 것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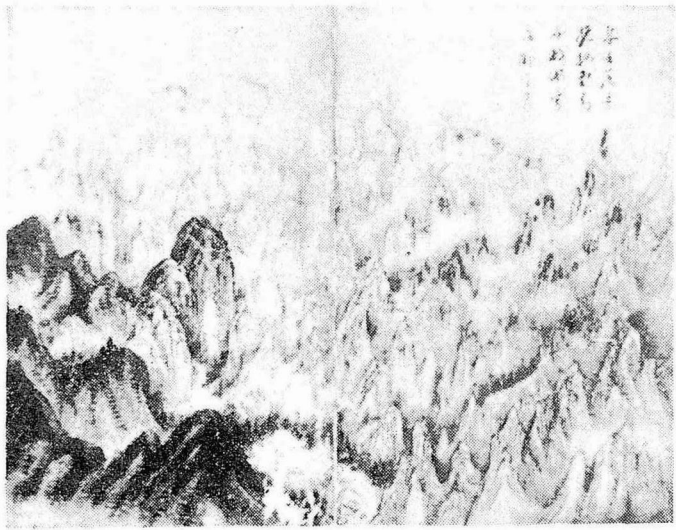
八月二日 서울을 출발 北極經由 丁抹에 온 후로 公報部主管의 韓國室設置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펜하겐에 돌아와 속소인 호텔 View에 들어선 것이 땅 거머가 전무법이었다. 내일부터는 기와일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초배를 시작하여야 되겠다. 딱딱하게 마른 빵을 씹으며 돌이켜 생각하니 우리나라에도 이런住宅博物館이 있어 各級住宅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생긴다. (九月十九日)

復軒白華詩畫合璧帖考

— 第七卷 第十一號 通卷七十六號 —
— 主로 檀園의 在世年代에 關해서 —

崔 淳 雨

大邱의 金鍾麟醫學博士의 好意로 그분이 所藏한 「復軒白華詩畫合璧」이라 題簽한 畫冊을 본 일이 있다. 이 畫冊은 英祖壬辰(一七七二)년에 復軒 金應煥(一七四二—一七八九)이 그 弟子 檀園 金弘道를 爲하여 그려 준 金剛全圖와 正祖己亥(一七七九)년에 檀園 自身이 白華子 洪愼猷에게



請해서 받은 이 그림에 對한 長文의 跋記 등이 內容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이 畫冊은 轉轉해서 八·一五前 柳子厚氏所藏이 되었고 同氏는 一九三一年 葦滄 吳世昌翁에게 跋文을 請한 바 있어 이 畫冊의 末尾에는 以上の 由來를 거듭 밝힌 葦滄翁의 一文이 添加되어 있다.

卷首에 붙어 있는 金剛全圖(三五·六cm x 二六·七cm)는 紙本에 水墨淡彩로 皆骨山一萬二千峯을 集約해서 그린 金剛山全景圖로서 近景으로 米法의 푸른 群峯을 配한 솜씨로 보아 흔히 謙齋의 金剛全圖에서 볼 수 있는 畫想과 흡사한 作品이다. 이 畫幅의 右上部에 「歲壬辰春 擔拙堂爲西湖做寫金剛全圖」라 한 復軒의 自題가 있어서 이 그림의 畫意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西湖라 한 것은 물론 檀園의 少時에 쓰던 別號의 하나이며 擔拙堂 또한 復軒이 쓰던 別號였던 것이다. 이 畫冊에 檀園을 爲하여 글을 써준 白華子 洪愼猷는 正祖己亥 當時(一七七九)五十八歲의 老境에 있었음으로 金應煥보다는 二十年 年長 檀園보다는 約三十年 長上이 되는 同時代인이었다는 것은 이 글 內容으로 보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金士能年未三十以畫名於世蓋天才高也」云云한 대목은

復軒이 쓰던 別號였던 것이다. 이 畫冊에 檀園을 爲하여 글을 써준 白華子 洪愼猷는 正祖己亥 當時(一七七九)五十八歲의 老境에 있었음으로 金應煥보다는 二十年 年長 檀園보다는 約三十年 長上이 되는 同時代인이었다는 것은 이 글 內容으로 보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 특히 「金士能年未三十以畫名於世蓋天才高也」云云한 대목은

金士能年未三十以畫名
於世蓋天才高也且其形
貌秀潔儼然而長誠非
塵中人只人如是故畫亦
如之余愛其人與畫而士

能亦愛余詩與筆然余
白秀學詩與書至今克
白首癖愈篤而猶未工
豈不以才不高而風氣又
尚也耶然粗有學識且

當時檀園의 나이를
밝혀준 매우 주목되
는記錄이다.

三

지금까지 알려진
檀園의 生年(一七六
〇—英祖 庚辰生 壺
山外史)①에 關해서
는 學界에 異論이
적지 않았고 특히 高
裕燮같은 本은 그의
論攷「金弘道」②속에
서 몇 가지 理由를
들어서 金弘道의 生
年을 十年乃至十
五年은 올려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즉 正祖王의 弘齊全
書에 기록된 金弘道關係의 記事③(正祖自身의 太子時代에 金弘道가 그
린 子眞에 關한 것)을 推算해 보면 金弘道의 그 當時 나이는 十一, 二歲의
少年이라야 된다는 點, 申紫霞가 그의 警修堂集에서 御容畫師인 金弘
道の 寫實力을 알잡아본 記錄④(純祖十一年 一八一—一 무렵의 事實)은 金
弘道가 그때 이미 老衰期에 들어서서 그의 筆力이 減退되었음을 意味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點, 金弘道의 英祖丙申年(一七七六)作 群仙圖屏風(孫
在鑿氏所藏)같은 圓熟한 大作이 그의 나이 불과 十七歲 때의 作品이 된다는
點等이다. 以上 高裕燮先生의 所論을 反對하고 英祖庚辰生說을 그
대로 믿으려한 것이 金裕俊氏⑤였는데 그 反對理由 中에 一例를 들면
金氏家譜의 復軒傳記속에 金弘道가 金應煥을 隨行해서 日本에 密行途中
金山에 갔을 때의 記事에 年少隨行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때 이미 金弘

道의 나이 三十이었는데 여기에 十年이나 十五年을 加算하면 四十歲以
上이 되니 과연 이러한 나이의 金弘道에게 年少隨行했다고 할 수가 있
을 것인가 하는 疑問이었다.

四

以上 두 主張에 對하여 아직까지는 모두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的
確한 資料의 出現이나 研究가 되어있지 못했었다. 따라서 拙稿 金弘道
小傳⑥ 속에서도 이러한 生年問題를 다루기는 했으나 傳記의 줄거리나
年譜는 壺山外史의 一七六〇年生說을 우선 追從해두는 立場을 취해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이 畫冊의 出現으로 해서 一七七九年 洪愼猷가
題記를 쓰던 當時 金弘道의 나이는 三十에 가까웠었다는 새 知見을 얻게
된 것은 앞으로 金弘道研究의 여러 問題點에 對해서 적지 않은 解明作用
을 하게 될 것이다.

五

말하자면 壺山外史의 金弘道傳대로 英祖庚辰生을 基準으로 잡아보면
洪愼猷가 그 題記를 쓴 一七七九年에는 金弘道의 나이 滿十九歲에 不過
했던 셈이 됨으로 「年未三十」이라한 이번 記錄으로 해서 結局 金弘道의
生年을 約十年 올려잡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畫冊發見의 重要한 意義가
된다. 이로써 보면 壺山外史의 記述과 金氏家譜의 復軒傳等⑦ 後世의 述
作中에서 金弘道의 在世年代에 關한 限 잘못된 推斷이나 錯誤가 介在해
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뿐더러 金弘道研究에 對한 異說 特히 高
裕燮先生의 提起한 問題가 거의 解明된다고 할 수 있다. 즉 金弘道의
나이 十一, 十二歲에 그렸다고 推算되는 前出 弘齊全書의 記事는 二十
歲前後에 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警修堂集의 記事內容은 當時(一八一
一) 金弘道의 나이 還甲무렵에 該當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前
出 英祖丙申(一七七六)作 群仙圖는 그의 나이 二十五, 六歲무렵의 作品
이 됨으로 그 畫格에 首肯이 간다고 하겠다. 權域書畫徵에 引用된 風謠
續選에 依하면 洪愼猷의 字는 徽之號는 白華子 南陽人이며 景宗二年 壬
寅生(一七二二) 英祖四十四年 戊子에 文科에 及第官은 典籍에 이르렀고
善書했다고 傳해 있다. 이 洪愼猷의 言論을 傳한 題記末尾에는 白華洪徽

之라 署名하고 「洪慎猷印」、「徵之」의 方印이 적혀 있다(畫帖 表裝의 크기는 三七·五cm x 二三·一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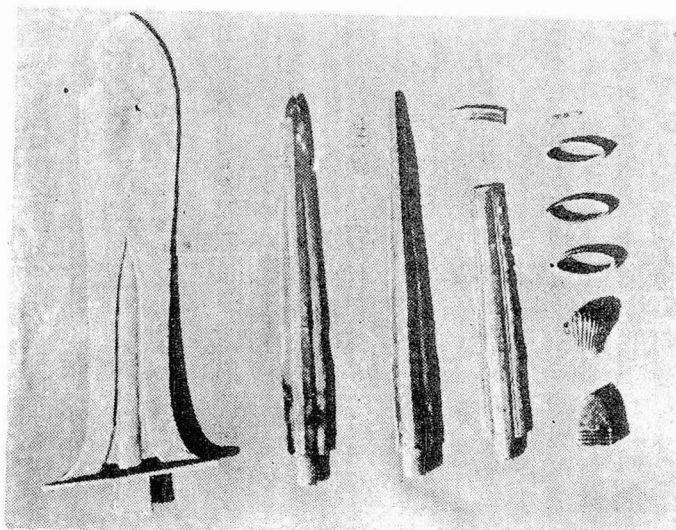
註

- ① 又峯 趙熙龍(二七九七—一八五九)의 著作이다. 又峯은 檀園의 子 畫員 金良暉와 交友關係가 있는 사람이다.
- ② 韓國美術文化史論叢 所收 一九六五 通文館
- ③ 弘濟全書 卷七 三十三葉에 「金弘道工於畫書 知其名久矣. 三十年前圖眞. 自是凡屬總事. 皆使弘道主人畫師. 例於歲初. 有帖畫應眞之規. 今年金弘道以應勿軒所註朱子詩. 畫爲八幅屏風. 深得聚星亭餘意. 既書原韻. 附寫和章. 以爲常目之資云爾」라 있다. 正祖王의 御製文集 弘濟全書를 完集印刊케 한 것은 己未(二七九九)年이었으니 이 해로부터 三十年을 꼽아 올라가더라도 靈山外史의 記錄을 따르면 英祖庚寅(一七七〇)이 됨으로 當時 金弘道의 나이 十一歲 무렵이 된다.
- ④ 權域書畫徵 所收의 警修堂集에 보면 「御容畫師 李命基, 金弘道 涓人 李八龍, 寫賤照, 皆思不似, 翁覃溪, 囑汪載靑, 寫照行看子, 亦略彷彿東國衣冠而已, 曰靑失筆行看子 二李檀國貌不同」이라 있다. 이 記事內容의 年代에 對하여 的 確한 것은 알 수 없으나 高俗燮 先生은 紫霞가 警修堂이라는 堂號를 쓰기 시작한 純祖十一年 辛未(一八一)前後의 일로 推定한 바 있다.
- ⑤ 「檀園先生의 繪畫」新天地 一九五〇, 一, 二月號 서술신문사
- ⑥ ① 韓國의 人間像 第五卷 所收 一九六五年 新丘文化社
- ② 人物韓國史 第四卷 所收 一九六五年 博友社
- ⑦ 權域書畫徵에 引用된 金氏家譜 中에 「己酉又奉命擬往日本. 潛寫地圖. 至釜山遊疾不起. 壽四十八. 時金弘道年少隨行經理喪事, 獨往對馬島 寫其圖而還猷」이라 있다. 正祖己酉는 一七八九年이며 靈山外史生年대로 따르면 金弘道의 나이 三十되던 해가 된다.

大邱市 晚村洞出土 青銅遺物

尹 容 鎭

一九六六年 九月十一日 大邱市 東區 晚村洞 山의 五番地(現 東村遊園地 境內)에서 버스 駐車場 新說을 爲한 整地作業을 하다가 그곳의 丘陵傾斜地에서 偶然히 青銅器類를 發見하였다. 筆著는 이 消息을 發見되었던 다음 달 大邱市 教育委員會의 連絡으로 알게 되어 當日 現場을 踏查하였다. 踏查結果 이 미 그一帶의 土層을 取土한 後였기에 當時作業에 關與한 車萬戶氏 및 朴時元氏에 前後 經緯를 물어서 記錄하였다. 이번 出土遺物 가운데는 國內初出의 中廣型 銅戈가 伴出되어 注目을 끌었다. 當時 見聞했던 바를 簡單히 紹介하여 資料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I. 出土地의 景 觀 및 出土狀況

大邱에서 慶州로 가는 街道를 따라 가면 大邱北部郊外에 흐르는 琴湖江에 이른다. 이곳 橋梁은 娥洋橋라 불리우